

# 정원오, ‘용광로 선대위’ 출범… 오세훈 10년 심판 전면화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인영·서영교  
박주민·전현희 등 경선 경쟁자 합류  
전략·정책·홍보 등 체계 세분화  
도시계획 등 전문가 중심 정책 설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용광로·서울 비전·오세훈 심판’을 3대 기조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인영·서영교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이정현 민주당 의원과 총괄선대본부장 이해식, 종합상황본부장·지원본부장인 채현일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팀 통합 정신을 구현하고 실무 전문가들 역량을 총결집했다”며 “서울 최다선(5선) 이인영, 여성 4선 서영교 의원이 선거를 총괄하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 선대위는 오세훈 시장 시정을 평가하기 위해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별도로 설치했다.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 천준호 의원이 수장, 경찰 출신 변호사인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부분부장을 맡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출입기자 프레스데이’에서 시작 전 선거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현 의원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식 의원, 정 후보, 채현일 의원, 이 의원. /뉴시스

는 오세훈 10년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울 지역 의원들도 오세훈 실정 심판을 위한 공격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도시개발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오 후보의 공약은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며 “정 후보는 착착 기획, 착착 개발을 통해 기본 계획, 지구 지정뿐 아니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등 중요 핵심적 절차에 있어서도 빠르게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오 시장 측에서 (정

후보에 대해) 박원순 시즌2라고 했는데 그건 건강부회”라며 “오 시장이 5선을 한다면 ‘윤석열 시즌2’라고 할 수 있고 서울 시민들이 주인 되고, 서울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 선대위는 서울 비전 설계를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대표적으로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글로벌 G2 서울비전위원회’를 맡는다. “강남북 균형 발전과 글로벌 G2 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비전을 설계한다”는 것이 선대위 설명이다.

대우건설 전무 출신이자 주택 건설

전문가인 이경섭 전 한화그룹 부사장은 새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참여연대 간사 출신 안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위원회’, 소설 범도 작가인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문화예술도시 위원회’를 각각 맡아 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다.

당내 인사로는 시각장애인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약자위원회를 맡아 소수자 정책을 만든다. 남인순 의원은 ‘시민주권위원회’를 맡아 국민주권정부 실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인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용광로 선대위’를 꾸린다. 김영배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김형남 전 사무국장은 대변인과 시민참여본부장을 맡는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황희 의원은 특보단장을 겸한다.

서울 지역구 재선 의원들은 공동선대본부장을 맡는 가운데 캠프 전략총괄본부장은 윤건영, 전략메시지본부장은 박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은 고민정 의원이

맡는다.

공약과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정책총괄본부는 오기형, 정태호 의원 2인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사 출신이자 보건정책 전문가인 신현영 전 의원은 부분부장 겸 정책자문단장을 겸해 실무를 지휘한다. 김남근, 박홍배 의원은 공동 제1정책본부장, 김윤 의원과 강청희 강남을 지역위원장은 공동 제2정책본부장을 맡는다.

초선 의원들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유세본부, 한민수의원은 캠페인 본부에서 활동한다. 홍보·뉴미디어본부는 김우영 의원, 한웅헌 홍보위원장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주희 의원은 법률·클린선거본부장, 김영호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이용선 의원은 시민사회본부장, 김형남 전 사무총장은 시민참여본부장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김한나 서초갑 위원장은 여성본부장, 함대건 용산구 의원은 청년본부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했다. 48개 지역위 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위원장 직무대행인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정 후보 비서실장은 박민규 의원, 고문단장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맡는다. 이정현 의원은 TV토론 및 언설본부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美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핫라인 구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방미 성과 발표  
백악관·국무부 등과 소통 채널 확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열흘간의 방미 성과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을 꼽았다. 또, 미국 측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 입장 및 쿠광 사태와 관련된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잇따라 표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어렵게 방미를 결정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보다 방미가 중요한 게 아니

라 지방선거를 위해서 방미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장 대표는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로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 여러 주요 인사들은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미국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통상협상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미국 측은) 쿠광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오히려 차별 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번 방미 일정이 사전에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서 분명히 일정을 조율하고 나갔다”며 “미리 조율한 일정 외에도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추가 일정까지 소화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미 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있었던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李 대통령 지지도 66%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

리얼미터, 취임 후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중동 전쟁 상황에서 원유 확보 등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가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는 65.5%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3.6%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지도가 60%대 중반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최고치는 지난해 7월 2주차 조사 결과인 64.6%였다.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0.0%로 직전 조사에 비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로 집계됐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및 에너지 수급 부족 상황에서 원유를 대량 확보하고, 코스피 6200선 회복 등이 주요 이유라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인권 발언, 현직 대통령 최초 세월호 12주기 참석 등으로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인천·경기(69.9%)가 직전 조사 대비 5.2%p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대구·경북의 경우 2.4%p 올랐지만 지지율은 48.5%로 50% 이하를 기록했다.

/서예진 기자

## 정청래 “국힘식 표현으로 ‘외교 참사’”

장동혁 대표 방미 일정 두고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고향인 보령을 찾아 장 대표의 방미 일정 두고 “국민의힘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못 만났다 하더라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만날 수 있다”며 “민주당·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못 만나도 간사는 만나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의원외교 등의 차원으로 방미했던 일을 설명하며 “(저는) 1시간 간격으로 연속 다섯 명의 하원의원을 만났다”며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장기간 체류하며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의 미국 의사당 앞 ‘인증샷 논란’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 관광객들이야 백악관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한다”며 “그런데 의원외교로 가는 경우는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도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Benson 방미, 화보 정치쇼를 마치고 귀

국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당원들조차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수미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제1야당 대표의 빈약한 외교력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일정 연장의 실체가 결국 ‘뒷모습 사진 한 장’뿐이라는 사실은 스스로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초라한 외교 성과를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며 “덩 빈 방미 성과와 당내의 사퇴 요구에 직면한 본인의 웅색한 처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